

21세기 농촌청소년 육성지도 방향

서 규 선

한국농업전문학교

21C Directions of Rural Youth Fostering

Gyu Sun Suh

Korea National Agricultural College

21세기는 지식, 정보, 기술의 시대로 일컬어지고 있다. 특히 독창성 선점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 및 공개된 정보와 기술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여 무단 복제 및 번역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러한 정보와 기술은 순식간에 국경 없이 확산되어 새로운 지식창출에 기여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많은 부를 얻게 해준다. 따라서 전통적인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이 부족한 개인, 사회, 국가라도 이와 같이 새롭고 유용한 지식창출을 많이 하게되면 부유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1세기 인류사회를 지식기반 사회라고도 말한다.

이러한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농촌청소년 육성지도 방향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나 기본적으로 농촌청소년의 사회적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지식, 기술, 정보화 시대를 슬기롭게 열어가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 그리고 미래 농업, 농촌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농촌지역의 정보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기본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어야 한

다. PC를 이용한 문서의 편집, e-mail의 송수신, 정보검색, 홈페이지 구축 등은 읽기, 쓰기, 셈하기와 같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많은 초·중등 학교에서 이러한 기초능력을 가르치고 있지만 아직도 농촌에는 이러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회로 진출한 농촌 청소년 및 농업인 후계자가 많다. 또한 농가의 PC 보급률이 저조하고, 보급된 PC 기능도 뒤떨어진 경우가 많으며, 정보 인프라의 미비로 인터넷 활용을 하는 농가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럼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농촌지역부터 정보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의 농촌 청소년 및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여 더 이상 농촌과 도시간에 격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농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바람직한 진로선택을 하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많은 농촌청소년들이 중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가정을 떠나 객지 학교로 진학을 하고, 대학진학에 있어서도 적성과 취미, 확고한 직업의식에 의해서보다는 성적에 맞추어 학교 및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지속된다면 그만큼 그들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지

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농촌 청소년 자신은 가치가 적은 지식, 정보, 기술습득에 귀중한 시간과 재화를 쓰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럼으로 농촌 청소년 각자가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그러한 특성들이 발휘되고 있는 직업의 현장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4H 도·농 교류체험, 직업현장 조사, 지역사회 전문직 종사자들과 협력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일감을 찾고 있는 농촌 출신 대학생, 대졸 후 취업기회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농촌 청소년들을 위하여 선기능장에 계약직 종사자로 안내하거나, 부모 슬하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촌청소년들을 위하여 부자협약농업 통하여 계획성 있게 자립을 해나가도록 하는 일도 좋은 진로선택 지도의 일환이라 하겠다.

셋째로 미래 농업과 농촌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정보가 넘치면 인간이 작아진다는 말이 있다. 이는 정보화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 바쁘고,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으려니 지치고, 짧은 여유는 자극적인 쾌락으로 날려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인간적인 접촉, 신선한 노동, 자원봉사와 명상의 기회를 상실하는 인간을 연상케 하는 말이다. 20세기 산업사회에서도 청소년의 인성교육이 중요하였지만 앞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상거래, 전자결재, 재택 근무와 원격조정 등에 의한 경제활동이 보편화 되다면 갇힌 공간 속에서 클릭만 해되는 더욱 소외된 인

간을 자초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고, 따뜻한 인간애를 나누며,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지혜를 갖도록 청소년을 육성 지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과 첨단 기술농업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면서 농촌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농업과 농촌 생활을 적절히 체험하며 성장하도록 지도하면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방향으로 농촌청소년 육성지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촌청소년지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인력, 장비, 예산 등이 확충되어야 하고, 담당직원의 전문화와 사기 진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육성팀은 직원 1-2명이 4H, 농업인 후계자, 농촌지도자 등 많은 사람들의 단체활동을 지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분주하고 개인 활동비도 많이 쓰는 부서로 알려져 있다. 그럼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을 보강하고 읍·면·동 지역을 순회지도 하는 데 필요한 차량유지비와 개인활동비도 지원하는 등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능동적인 자질향상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4H후원회와 같은 단체에 대해서도 인력과 기금을 확충하여 스카우트 연맹 수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과 단체는 각급 학교의 교사, 농촌지도자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4H 자원지도자로 위촉하여 유기적인 협력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